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Individuation of Adolescents

황영은(Young Eun Hwang)¹⁾

도현심(Hyun Sim Doh)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individuation with a sample of 271 high school students (156 boys and 115 girls) living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Maternal monitoring, reasoning and affec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connectedness and separateness, two subscales of adolescent individuation, and maternal over-expectation, intrusiveness, physical abuse and neglect were negatively related to connectedness and separateness. Mother-adolescent conflict was negatively related to connectedness and separateness. Maternal monitoring, reasoning and affection were negatively related to mother-adolescent conflict, and maternal over-expectation, intrusiveness, and physical abuse and neglect were positively related to mother-adolescent conflict. Mother-adolescent conflict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adolescent individuation.

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maternal parenting), 모-청소년 자녀간 갈등(mother-adolescent conflict), 개체화(individuation).

I. 서 론

IMF 위기 이후, 출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하고도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늦추려는 성인을 지칭하여, ‘캥거루 족(族)’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이 용어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나이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일컫는다.

현재 여러 언론지상에서는 이러한 캥거루 족의 규모가 취업난과 경제 불황 속에서 계속 급

¹⁾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c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goodparents@hanmail.net

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조선일보, 2003년 5월 18일자; 한국경제, 2003년 1월 14일자; 한국일보, 2001년 5월 16일자).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개별성을 가지고 자립적 위치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독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한 독립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연결감을 지닌 채 분리되는, 일종의 ‘개체화(individuation)’를 의미한다는 연구결과(Lapsley, Rice, & Shadid, 1989)에 이어, 최근의 연구들은 개체화를 가족 구성원들의 분리(separateness)와 연결(connectedness)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함으로써 (Grotevant & Cooper, 1986), 개체화에 있어서 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결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개체화를 연결과 분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성공적 개체화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한편, 개체화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을 포함한 청소년 자신의 발달과 같은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박아청, 2001; 백지숙, 1999; 이희자, 최수경, 1999; 장휘숙, 2002; 한희준, 이희자, 1994; Baik, 1997; Josselson, 1988; Shulkin, 1990). 이러한 변인들 가운데 특히, 가정생활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으며(박아청, 2001; 이희자, 최수경, 1999; 정종권, 1998; 한희준, 이희자, 1994), 그 중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개체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체화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Grotevant & Cooper, 1986; Lloyd & Miller, 1997). 예를 들면, Hill과 Holmbeck(1986)은 미국과 다른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동기에는 철저한 감독(monitoring)과 감독자(supervisor)로서의 부모 역할이 필요한 반면, 청소년기에는 보살핌과 연결된 가족 관계 맥락 내에서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개체화 모델과 관련된 청소년 중기 동안의 가족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본 연구들(Cooper et al., 1983; Grotevant & Cooper, 1986)에서는 청소년의 발달은 연결감이 있는 가족 환경 내에서 그들의 독특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는 가정에서 촉진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Hill과 Holmbeck(1986)의 보고와 유사하다.

국내 연구들 가운데, 양육행동과 개체화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개체화에 관련된 많은 국내 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애착의 질이나(김은진, 2000; 유은희, 박성연, 1991; 이희영, 1999;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가족 체계 유형과의 관련성을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는 점(이희자, 최수경, 1999)에 근거해 볼 때, 부모-자녀관계와 개체화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외 연구들(Grotevant & Cooper, 1986; Josselson, 1988)이 개체화를 연결과 분리의 동일한 매트릭스의 양면으로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관련연구들(김은진, 2000; 이희영, 1999; 장휘숙, 2002; 조영주, 최해림, 2001) 가운데 몇몇 연구(백지숙, 1999; 백지숙 등, 1998)를 제외하고는

연결과 분리의 측면이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서의 개체화에 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체화라는 의미 내에 연결과 분리가 공존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개체화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개체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도,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기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부모-자녀간의 갈등 상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개체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los, 1979;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Josselson, 1980). 연구의 예로,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접목시켜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의 적응적인 중요성에 대한 보완적 관점을 제안한 Holmbeck과 Hill(1988)은 심리내적 수준에서 볼 때, 갈등이 청소년의 개체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Youniss와 Smollar(1985)도 강한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애착 맥락 하에서의 갈등이 개체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함으로써, Hombeck과 Hill(1988)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개체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주로 정신분석 및 사회학습 이론을 접목시킨 입장에서 개체화를 단지 분리의 의미로 개념화하기 때문에(예: Hill & Holmbeck, 1986), 연결과 분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최근의 개체화 개념과는 다소 어긋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강한 독립은 연결과 분리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개체화일 때 가능하다고 보고한 최근 연구들(Quintana & Kerr, 1993; Quintana & Lapsley, 1990)과 더불어 이러한 개체화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연결과 분리가 공존하는 개념인 개체화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개체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 갈등과 개체화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많은 국외 연구들이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개체화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Adelson & Doehrmann, 1980;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성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밝혀보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큰 맥락으로 볼 때, 부모-자녀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부모와 청소년 사이가 원만하거나 혹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 맥락에 관심을 가진 Ruter와 Conger(1995)는 유연하지 않고, 비판적이며, 강압적인 가정의 부모와 청소년 간에는 빈번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Hill, 1993; Paikoff & Brooks-Gunn, 1991). 국내 연구로 이정숙(1992), 이정숙, 김유광, 서병숙(1995)은 부모의 거부적 과보호와 무관심이 청년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상자가 여자로 한정되어 있고 비교집단이 없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발달 과정 중 하나인

개체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모가 청소년에게 비권위적이거나 비지배적인 양육을 할 때 정신분석적 입장, 즉 분리의 의미만이 아닌 연결적 의미가 포함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의 의미인 개체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Cooper et al., 1983; Grotew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Hill, 1993; Paikoff & Brooks-Gunn, 1991), 부모가 자녀를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할 때 부모-청소년 자녀간에는 갈등이 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개체화를 분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에는 양자간에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고 있었으나(Holmbeck & Hill, 1988),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연결 및 분리의 의미가 포함한 개체화를 촉진시키듯이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의미하는 부모-자녀간 갈등은 반대로 개체화를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개체화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된다. 즉,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개체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을 낮추고,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낮은 갈등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개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개체화 등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들은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문경주, 오경자, 2002; 유은희, 박성연, 1991; 이주옥, 1994; Steinberg, 1981; Steinberg & Hill, 19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덧붙여, 여전히 가부장적 경향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대부분 어머니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므로(Larson & Richards, 1994; Montemayor & Hanson, 1985) 청소년은 아버지보다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보다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Ellis-Schwabe & Thornburg, 1986; Steinberg, 198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 각각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간 갈등이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모-자녀간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개체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개체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갈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강남 지역에 위치한 S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271명(남자 : 156명, 여자 : 115명)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한정하였으며, 친부모가 아닌 청소년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청소년의 연령이 □ 자형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Montemayor (1983)에 근거하여, 청소년 초기에 증가된 갈등이 비슷하게 지속되는 시기이자, 청소년 후기에 활발하게 나타나는 개체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가정되는 청소년 중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도구

1)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기초로, 청소년이 현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임 및 애정 등의 8개의 요인(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요인별로 측정된 Cronbach's α 는 비일관성($\alpha=.55$) 요인을 제외하고는 .73-.84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는 낮은 신뢰도 계수가 산출된 비일관성 요인을 제외한 7개 요인을 이용하였다.

2) 모-자녀간 갈등 척도

(1)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척도
모-자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가지 척도들 가운데 하나인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척도(IC : Issue Checklist)는 Robin(1975)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후 Robin, Kent, O' leary, Foster와 Prinz(1977)에 의해 발전되어진 것을 토대로 Robin과 Foster(1989)가 간략화한 척도를 변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최근 가정 내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의견 대립 상황의 빈도와, 그러한 의견대립시 화가 났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의견대립의 잠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44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주제들에 대해, 지난 4주 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게 한 다음,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화가 난 정도를 Likert식 4점 척도인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다. 의견대립의 빈도를 살펴보는 문항들은 모-자녀간 갈등을 측정하기보다는, 각 문항들이 모-자녀간 의견 대립의 잠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제 혹은 논쟁거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 산출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의견대립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자녀간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의견대립의 정도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의견대립의 빈도의 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2)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

모-자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척도인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CBQ : 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는 Prinz, Foster, Kent와 O' Leary가 1979년에 개발한 최초의 척도를 바탕으로 Prinz(1979)가 간략화한 것을 번안한 것이다. CBQ는 일반적인 갈등과 관련된 행동의 묘사에 초점을 두어, 다른 구성원과 혹은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에 대한 불일치와 불평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CBQ의 문항들은 '예' 혹은 '아니오' 형식으로 답하도록 되어져 있으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평 및 불만'(28문항)과, '가족구성원간(즉, 어머니와 청소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16문항) 등 두 가지의 잠정적인 불만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각 측면에서의 불평 및 불만 점수는 부정적인 문항에서 '예'라고 답한 문항수와 긍정적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문항수를 합산하여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으로 명명하였다. Cronbach's α 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89,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82이었다.

3) 청소년의 개체화 척도

청소년의 개체화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백지숙 등(1998)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후기 개체화 척도(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체화의 중요한 두 측면인 부모에 대한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크게 부모에 대한 분리 요인(9문항)과 부모에 대한

연결요인(11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리 요인은 또한 부모의 통제 요인(4문항)과 자아신뢰감 요인(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통제 점수는 낮고 자아신뢰감 점수는 높을 때 부모에 대한 분리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통제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 가운데 신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부모님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내게 조언하신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부모에 대한 연결 요인은 11문항으로, 부모에 대한 분리 요인은 8문항(부모의 통제 3문항과 자아신뢰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부모에 대한 연결이 .90, 부모의 통제가 .75, 자아신뢰감이 .75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를 위해, 남녀 공학이며 중산층에 속하는 학교인 서울시 강남 지역에 위치한 S고등학교가 선정되었으며, 2002년 10월 15일에 조사되었다. 배부된 380부 가운데 27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친부나 친모가 아니거나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인 8부를 제외한 총 271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C +11.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개체화 등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자녀간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델을 기초로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몇몇 요인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남녀 청소년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적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연결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남 : $r=.33 - .74$, $p<.001$, 여 : $r=.58 - .76$, $p<.001$), 어머니가 감독이나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하거나, 애정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높은 연결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과 부모와의 연결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나타내어(남 : $r=-.33 - -.53$, $p<.001$, 여 : $r=-.36 - -.69$, $p<.001$), 어머니가 과잉간섭적, 학대적이거나 방임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연결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즉, ‘부모의 통제’와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애정은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 $r=-.31 - -.35$, $p<.001$, 여 : $r=-.30$, $p<.01$), 어머니가 합리적인 설명을 많이 하거나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은 부모의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남 : $r=.26 - .62$, $p<.001 - .01$, 여 : $r=.27 - .68$, $p<.001 - .01$),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이 높을 경우 청소년은 부모의 통제를 높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감독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자아신뢰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 $r=.24 - .28$, $p<.001 - .01$, 여 : $r=.30 - .41$, $p<.001 - .01$), 어머니가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하거나 애정적일수록, 청소년은 높은 자아신뢰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신뢰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남 : $r=-.31$, $p<.001$, 여 : $r=-.25$, $p<.001$), 어머니가 자녀를 방임할수록, 청소년은 낮은 자아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몇몇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r=-.32$, $p<.01$), 어머니가 과잉기대를 많이 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낮은 연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감독, 과잉간섭 및 학대와 남자 청소년의 자아신뢰감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각각 $r=.27$, $p<.01$, $r=-.26$, $p<.01$, $r=-.28$, $p<.01$), 어머니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여자 청소년은 높은 자아신뢰감을 느끼며, 어머니의 간섭 및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낮은 자아신뢰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

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자아신뢰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r=.20$, $p<.05$), 어머니의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자아신뢰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표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 간의 상관관계 (남/ 여)

양육행동	부모와의 연결	부모에 대한 분리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
감독	.33***/.63***	-.08/.18	.06/.27**
합리적 설명	.42***/.58***	-.35***/-30**	.24**/.30**
과잉기대	-.12/.32**	.39***/.55***	.20*/-.07
과잉간섭	-.33***/.47***	.62***/.68***	.13/-.26**
학대	-.33***/.36***	.29***/.42***	-.16/-.28**
방임	-.53***/.69***	.26**/.27**	-.31***/-.25**
애정	.74***/.76***	-.31***/-.30**	.28***/.41***

주 : 남자 청소년은 156명, 여자 청소년은 115명임.

* $p<.05$ ** $p<.01$ *** $p<.001$

2.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모-자녀간 갈등, 즉 ‘모-자녀간 의견 대립시 부정적 감정’과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자

녀간 의견대립시의 부정적 감정에서는 남녀 청소년간에 양자간 관계의 방향이 일치하였다. 반면,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에서는 몇몇 요인들간의 관계에서 양자간에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표 2>).

모-자녀간 의견대립시의 부정적 감정은 남녀 청소년의 부모와의 연결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남 : $r=-.47$, $p<.001$, 여 : $r=-.55$, $p<.001$), 부모에 대한 분리의 한 요인인 부모의 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남 : $r=.40$, $p<.001$, 여 : $r=.27$, $p<.01$) 나타내어,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낮은 연결감을 느끼고 부모의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 모-자녀간 갈등과 부모에 대한 분리의 또 다른 요인인 자아신뢰감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즉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의 연결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남 : $r=-.72$, $p<.001$, 여 : $r=-.71$, $p<.001$), 부모의 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남 : $r=.58$, $p<.001$, 여 : $r=.52$, $p<.001$) 나타내어,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은 부

<표 2> 모-자녀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상관관계 (남/ 여)

모-자녀간 갈등	부모와의 연결	부모에 대한 분리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47*** / -.55***	.40*** / .27**	-.08 / -.17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72*** / -.71***	.58*** / .52***	-.14 / -.25**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60*** / -.71***	.35*** / .40***	-.18 * / -.36***

주 : 남자 청소년은 156명, 여자 청소년은 115명임.

* $p<.05$ ** $p<.01$ *** $p<.001$

〈표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상관관계(남/여)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감 독	-.12 / -.41***	-.25** / -.41***	-.27** / -.57***
합리적 설명	-.32*** / -.29**	-.46*** / -.41***	-.29*** / -.38***
과잉기대	.31*** / .23*	.33*** / .40***	.29*** / .30**
과잉간섭	.54*** / .34***	.60*** / .56***	.42*** / .46***
학 대	.34*** / .33***	.35*** / .46***	.36*** / .35***
방 임	.32*** / .43***	.42*** / .56***	.44*** / .59***
애 정	-.43*** / -.41***	-.62*** / -.55***	-.67*** / -.64***

주 :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각각 156명과 115명임.

* $p<.05$ ** $p<.01$ *** $p<.001$

모에 대한 낮은 연결감과 높은 부모의 통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자아신뢰감간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25$, $p<.01$), 남녀간에 다른 결과를 보였다.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가운데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의 연결(남 : $r=-.60$, $p<.001$, 여 : $r=-.71$, $p<.001$) 및 자아신뢰감(남 : $r=-.18$, $p<.05$, 여 : $r=-.36$,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부모의 통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남 : $r=.35$, $p<.001$, 여 : $r=.40$, $p<.001$)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와 연결감이 낮고 부모의 통제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전반적으로

로 양자간의 관계는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양육행동 요인 중 감독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간에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표 3〉).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의견대립시의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감독을 제외한 모든 양육행동 요인들은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어머니의 감독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여자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41$, $p<.001$),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남 : $r=-.32$, $p<.001$, 여 : $r=-.29$, $p<.01$) 및 애정(남 : $r=-.43$, $p<.001$, 여 : $r=-.41$, $p<.001$)은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 $r=.31 - .54$, $p<.001$, 여 : $r=.23 - .43$, $p<.001 - .05$)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하거나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어머니와의 의견대립시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은 적어지며, 어머니가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적으로 대하거나 방임할수록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간의 관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 $r=-.25$ - $.62$, $p<.001$ - $.01$, 여 : $r=-.41$ - $.55$, $p<.001$)을,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남 : $r=.33$ - $.60$, $p<.001$, 여 : $r=.40$ - $.56$, $p<.001$)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머니가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을 많이 보일수록 남녀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적으며, 어머니가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적으로 청소년에게 대할수록 남녀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가운데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모든 양육행동 요인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방향성은 양육행동 요인과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의 관계와 일치하였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 등의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갈등과는 부적 상관을, 청소년의 개체화의 한 요인인 부모와의 연관과는 정적 상관을, 분리 요인인 부모의 통제 및 자아신뢰감과는 각각 부적 상관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자녀간 갈등은 청소년의 개체화의 부모와의 연관과는 부적 상관을, 부모의 통제 및 자아신뢰감과는 각각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표 1>, <표 2>, <표 3>). 이처럼 각 연구 변인들간의 유의한 관계는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어느 한 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이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

(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의 매개적 역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 변인인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잉간섭의 유의한 영향력($\beta=-.33$, $p<.001$)은 부정적 감정이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은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의 부모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력은 24%이었으며, 부정적 감정이 부모와의 연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13%이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

①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
남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변인인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어머니의 학대적 양육의 영향력($\beta=-.33$, $p<.001$)은 학대와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학대적 양육과 청소년의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학대와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력은 53%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와의 연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42%이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 변인인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과잉기대의 영향력($\beta=-.32, p<.01$)은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또한,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잉간섭($\beta=-.47, p<.001$) 및 학대($\beta=-.36, p<.001$)의 영향력도 과잉간섭과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 학대와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각각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과잉기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와, 과잉간섭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 및 학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 각 하위 요인들과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력은 49 - 51%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와의 연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29 - 39%이었다.

②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효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종속 변인인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잉간섭의 영향력($\beta=-.33, p<.001$)은 과잉간섭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

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이는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과잉간섭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력은 36%이었으며,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와의 연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25%이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연결에 미치는 어머니의 과잉기대($\beta=-.32, p<.01$) 및 학대($\beta=-.36, p<.001$)의 영향력은 과잉기대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과, 학대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각각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와, 학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나타내었다. 과잉기대 및 학대 각 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와의 연결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51%와 52%이었으며,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와의 연결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41%와 39%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의 매개적 역할은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의 경우에만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었다.

(1)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 남자 청소년

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분리의 한 요인인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beta=-.35$, $p<.001$), 학대($\beta=.29$, $p<.001$), 방임($\beta=.26$, $p<.001$) 및 애정($\beta=-.31$, $p<.001$)의 영향력은, 이러한 양육행동 요인 각각과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학대, 방임 및 애정 등 각각의 하위 요인과 부모의 통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들과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의 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34 - 35% 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의 통제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23 - 27%이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방임 및 애정적 양육행동 요인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의 또 다른 요인인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방임의 영향력($\beta=.26$, $p<.01$)은 방임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방임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애정의 영향력($\beta=-.30$, $p<.001$)도 애정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어서,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애정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방임 및 애정 각 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의 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4%와 13%이었으며, 모-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의 통제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7%와 3%이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의 영향력($\beta=-.30$, $p<.01$)은 합리적 설명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또한, 부모의 통제에 미치는 방임($\beta=.27$, $p<.01$) 및 애정($\beta=-.30$, $p<.01$)의 영향력 역시 방임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 애정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각각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 즉,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합리적 설명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 방임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 및 애정과 부모의 통제와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방임 및 애정 등 각 하위 요인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부모에 대한 통제에서의 설명력은 각각 19%, 16%, 그리고 16%이었으며,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부모의 통제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각각 10%, 9%, 그리고 7%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자아신뢰감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신뢰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감독($\beta=.27, p<.01$), 과잉간섭($\beta=-.26, p<.01$), 학대($\beta=-.28, p<.01$) 및 방임($\beta=-.25, p<.01$)의 영향력은,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요인 각각과 여자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에 더 이상 유의적이지 않았다. 즉, 여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의 각 하위 요인과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과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의 자아신뢰감에 대한 설명력은 13 - 16%이었으며,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이 자아신뢰감을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6~8%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청소년의 연령이 □자형 함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Montemayor(1983)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 초기에 증가된 갈등이 비슷하게 지속되는 시기 이자, 청소년 후기에 활발하게 나타나는 개체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가정되는 중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모-자녀간 갈등 및 청소년의 개체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의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모와의 연결과 정적 관계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은 부모와의 연결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가 자녀를 감독하고 애정적으로 대할 때 청소년의 부모와의 연결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양육을 경험할 때 아동 혹은 청소년이 가장 성공적인 발달과 최상의 적응을 이루었다고 보고한 국외 연구결과들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Steinberg & Darling, 1994)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온정 혹은 애정과 관심의 의미인 감독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심리적인 독립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도 연결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에게 과잉간섭을 할 때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연결감이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관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청소년기는 인지적 능력이 급등하여 추론적 능력 및 추상적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이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Smetana, 1988b) 이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부모와의 연결감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연결감을 지속시키기 위해 자녀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애정과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은 부모에 대한 분리의 한 요인인 부모의 통제와 각각 부적 관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며,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청

소년은 부모에 대한 통제를 덜 경험한다는 결과, 즉 부모에 대한 분리가 높다고 나타난 결과는, 비권위적이고 비지배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Cooper et al., 1983; Grotev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 어머니가 청소년에게 과잉기대를 하고, 과잉간섭으로 양육할수록 부모의 통제가 많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된다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Rohner & Pettengil, 1985)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된다는 국외 연구결과(Rohner & Rohner, 1978)와는 일치한다. 즉, 부모의 과보호는 적대감이나 부정적 의미를 지니므로, 남녀 청소년 모두 어머니에게 과잉기대나 과잉간섭을 받을수록 부모의 통제를 보다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의욕상실, 냉담, 무감동하여 생활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므로(오기선, 1965),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개체화가 활발히 일어나기보다는 부모의 분리의 한 요인인 부모의 통제가 높아 부모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머니가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방임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가 높다는, 즉 부모에 대한 분리가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잘 못된 자녀양육의 전형적 일례가 되는 학대적 양육은 나아가 개체화의 측면에서는 부모에 대한 분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방임적 양육을 경험할 때 궁극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분리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서,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방임적으로 양육할 때 청소년 자녀는 하나의 개체로서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분리의 또 다른 요인인 자아신뢰감의 경우,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및 애정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방임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앞서 언급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분리의 요인인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신뢰감이 높아진다는 본 결과는 어머니가 권위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닌 합리적 설명을 많이 해주고, 애정적으로 대할수록 청소년은 스스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어 스스로에 대한 능력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가 청소년을 방임할수록 자아신뢰감은 낮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방임은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 장애 및 비행과 공격성에 결정적인 위험인자라고 보고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여(Kaplan, Peleovitz, Salsinger, Weiner, Mandel, Lesser & Labruna, 1998; Lewis, 1992), 어머니의 방임적 양육행동은 이 시기의 건강한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까지 낮아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 간의 몇몇 관계에서 청소년의 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남자 청소년은 양자간의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양자간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Minuchin(1974)이 제안한 밀착된 경계(enmeshed boundary)로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경계가 미분화되어 있어 청소년은 자율성에 방해를 받고, 밀착된 다른 가족원의 행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동성(同性)인 어머니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가 쉬우며, 나아가 어머니의 과잉기대는 보다 명확한 경계(clear boundary)를 유지하기가 쉬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보다 큰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낮은 부모와의 연결감을 지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독, 과잉간섭 및 학대와 부모에 대한 분리의 한 요인인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서 남자 청소년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과잉기대와 자아신뢰감간의 관계는 남자 청소년은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감독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자아신뢰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아선호사상 및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유달리 자신이 감독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볼 때,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 등의 긍정적 양육 행동은 부모와의 연결 및 부모에 대한 분리와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이와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모-자녀간 갈등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은 청소년의 부모와의 연결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에 대한 분리의 요인인 부모의 통제와는 정적 관계를, 부모에 대한 분리의 또 다른 요인인 자아신뢰감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부모와 낮은 연결감을 느끼며, 부모에 대한 통제를 많이 느껴 부모에 대한 분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과 부모와의 연결간과,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과 부모에 대한 통제간 각각의 관계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과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서는 남자 청소년일 경우 양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낮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Minuchin(1974)이 제안한 밀착된 경계로 설명할 수 있다. 동성인 어머니와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리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 청소년 모두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연결도 낮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분리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 본 연구 결과는 이 시기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조화가 청소년의 발달을 지극히 저해하고, 심리내적 미성숙의 징후라고 보고한 A. Frued(1958)의 정신분석적 입장과 상반된다.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접목시킨 Holmbeck과 Hill(1988)의 심리내적 수준(intrapsychic level)에서 갈등이 개체화를 촉진

시킨다고 보고와 Youniss와 Smollar(1985)의 부모-청소년 자녀의 애착 맥락 하에서의 갈등이 개체화를 촉진시킨다는 결과와도 상반된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는 개체화의 의미상의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개체화의 의미를 분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의미의 분리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반면, 본 연구의 개체화는 부모와의 연결 및 부모에 대한 분리의 의미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부모의 분리 요인도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해석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체화 척도에서 낮은 부모의 통제 및 높은 자아신뢰감은 부모에 대한 분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나타내므로 모-자녀간의 갈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부정적 부모-자녀관계의 한 측면인 모-자녀간 갈등과 연결 및 분리와 같은 개체화 요인들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는 바로 앞서 발견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이러한 요인들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갈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감독과 남자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양육행동 요인은 남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감독 및 남녀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 애정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과잉 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 등의 부정적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과 정적 관계를 나

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과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간의 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들과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간의 관계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은 감소하는 반면,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이러한 갈등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 및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모-자녀간 낮은 갈등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녀의 성공적인 발달과 최상의 적응에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결과들(Steinberg et al., 1992; Steinberg & Darling, 1994) 및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손석한 등, 2001)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가장 성공적인 발달과 최상의 적응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Steinberg et al., 1992; Steinberg & Darling, 1994)과도 같은 맥락으로,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들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며 애정적으로 대할 경우 모-자녀간 갈등은 감소하는 반면, 어머니가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적으로 대할수록 모-자녀간 갈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 청소년들은 왕성한 인지적 발달이 일어나서 추론 능력이나 추상적 개념이 발달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동이 자신의 신념과 불일치할 때, 부모에게 질문이나 부모가 정한 규율이나 기대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된다(Collins, 1990; Smetana, 1988a). 특히 청소년들

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통제에 대해 과연 부모가 합법적인 정당함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Smetana, 1988a; 1988b; 1989). 즉, 이러한 신념이나 사고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부모와의 대화로 인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모-자녀간 갈등이 청소년의 개체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Holmbeck & Hill, 1988), 부모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aplan et al., 1998; Lewis, 1992)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체화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Cooper et al., 1983; Grotewant & Cooper, 1986; Hill & Holmbeck, 1986)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갈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본 결과, 몇몇의 경우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의 매개적 역할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만 과잉간섭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연결감은 남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잉간섭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의 과잉간섭을 얼마나 지각했는가에 따라 모-자녀간 의견 대립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가 달라지고, 나아가 이러한 감정

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에 대한 연결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학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어머니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학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간섭과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과잉기대 및 학대와 부모와의 연결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성에 따라 요인별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으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부모와의 연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감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모-자녀간 갈등을 증가시켜 더 나아가 부모와의 연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개체화의 한 요인인 부모와의 연결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갈등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의 한 요인인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는 남녀 청소년이 보고한 모-자녀간 의견대립시의 부정적 감정은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은 부정적인 양육행동뿐 아니라 몇몇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도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합리적 설명, 학대, 방임 및 애정

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합리적 설명, 방임 및 애정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각각 방임 및 애정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와, 합리적 설명, 방임 및 애정과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부모에 대한 분리의 또 다른 요인인 자아신뢰감간 관계에서 남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아신뢰감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은 어머니의 감독,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 등의 양육행동과 자아신뢰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자 청소년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신뢰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의 감독, 과잉간섭,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청소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평 및 불만에 의해 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청소년의 개체화를 증진시키리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 일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각 변인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맺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육행동, 부모-청소년 자녀 간 갈등 및 개체화 연구는 성별을 고려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결과들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부모와의 연결 및 부모에

대한 분리 요인이 모두 높은 성공적인 개체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개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 등과 같은 양육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셋째, 모-자녀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개체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한 정신분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접목한 국외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모-자녀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개체화의 하위 요인인 부모와의 연결 및 부모에 대한 분리가 낮다고 나타났다.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 발달간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갈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에서 부각되어,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모-자녀간의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부모와의 연결감을 낮추고 부모에 대한 분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중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개체화를 성공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자녀들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감독, 합리적 설명 및 애정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인 개체화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의 실정에 맞는 부모의 실제적인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개체화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모-자녀간 갈등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차후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내용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체화에 관련하여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개체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부모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방식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셋째, 본 연구는 모-자녀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척도(Issue Checklist)와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Conflict Behavior Questionnaire) 등 두 가지 척도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좀더 다양한 측정을 시도하여, 양 척도의 유용성을 비교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모-자녀간 의견대립시 부정적 감정 척도에 비해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가 관련 변인들과 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의 모-자녀간 갈등 연구에서 모-자녀간 불평 및 불만 척도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개체화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갈등의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이 양방향적이라는 최근 연구들의 문헌고찰을 고려해 볼 때(김수연, 1997; 정경아, 1997), 갈등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부-자, 부-녀, 모-자 및 모-녀 관계 등 부모-자녀관계 내의 다양한 관계들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 및 부모 모두를 포함한 갈등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진(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수·류진혜(2001).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와 청소년비행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8(2), 1-23.
- 김정희·최외선(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비행. 재활심리연구, 5(1), 91-103.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녀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1), 29-43.
- 박아청(2001). 대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의 적응과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사이의 인과관계. 아동교육, 10(1), 161-173.
- 박영미(1996).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5(1), 49-64.
- 백지숙(1999).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0(2), 269-277.
- 백지숙·도현심·박성연(1998). 한국 청소년후기 개체화척도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 89-102.
- 손석한·노경선·허묘연·정현옥·이소희·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4), 605-615.
- 신효식·이경주(2001). 청소년 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가정학회지, 39(1), 29-38.
- 오기선(1968). 子女用 부모자녀 관계 진단검사지, 코리안테스팅 센타.
- 유은희·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가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이영나(2001).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청소년의 의사 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자녀의 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 25-328.
- 이정숙·김유광·서병숙(1995). 청년기 자녀의 갈등에 관한 연구-TAT를 통한 방법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99-205.
-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이희영(1999).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대한 부모-자녀 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관계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239-259.
- 이희자·최수경(1999).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대한가정학회지*, 37(8), 18-28.
- 장휘숙(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정경아(1993). 사춘기 빌달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종권(1998).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주·최해림(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한희준·이희자(1994). 분리 개별화와 가족 응집력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87-194.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언론지 기사>
- 조선일보. 【오늘 성년의 날】 괴로운 20代... “희망이 안보인다.”. 2003년 5월 18일자.
- 한국경제. 【10대에게 경제교육을】 학부모 경제교실. 2003년 1월 14일자.
- 한국일보. 【新가족풍속도】 “부모 품이 좋아” 캠거루족 급증. 2001년 5월 16일자.
- Adelson, J., & Doehrmann, M.(1980). The psychodynamic approach to adolescence In J.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Wiley, pp. 99-116.
- Baik, J.(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 construction of a measure of individuation and psychometric analy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ress.
- Blos(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Collins, W. A.(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In R. Montemayor, G. Adams, & T. Gullotta(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Vol. 2, pp. 85-106). Beverly Hills, CA : Sage.
- Cooper, C., Grotevant, H., & Condon, S.(1983). Individuality and connectedness in the family as a context for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and role taking-skill. In A. Grotevant & C. Cooper (Eds.), *Adolescent development in the family*. San Francisco : Jossey-Bass, 43-60.
- Ellis-Schwabe, M., & Thomburg, H. D.(1986). Conflict area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logy*, 120(1), 59-68.
- Freud, A.(1958).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3, 231-258.
- Grotevant, H., & Cooper, C.(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ill, J. P.(1993). Recent advances in selected aspects of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69-99.
- Hill, J., & Holmbeck, G.(1986). Attachment and autonomy during adolescence. In G. Whitehurst (Eds.), *Annals of child development*, Greenwich, Conn : JAI Press.
- Holmbeck, G. N., & Hill, J. P.(1988). Storm and stress beliefs about adolescence : Prevalence, self-

- reported antecedents, and effects of and undergraduate cour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 285-306.
- Holmbeck, G., N. & O' Donnell, K.(1991). Discrepancies between perceptions of decision-making and behavioral autonomy. In R. L. Paikoff(Eds.), *Shared views in the family during adolescence :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Vol. 51, pp. 51-69). San Francisco : Jossey-Bass.
- Holmbeck, G. N., Paikoff, R. L., & Brooks-Gunn, J.(1995).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s.), *Handbook of parenting*-Volume1 : Children and parenting(pp. 91-118).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Josselson, R. L.(1988). The embedded self : I and thou resisted.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NY, Springer-Verlag, 91-106.
- Kaplan, SJ, Peleovitz, D., Salsinger, S., Weiner, M., Mandel, F. S., Lesser ML., & Labruna, VE. (1998). Adolescent physical abuse : risk for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AM J Psychiatry* 155, 954-959.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arson, R., & Richards, M. H.(1994). Divergent realities :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New York : Basic Books.
- Lewis, D. O.(1992). From abuse to violence :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3), 389-391
- Lloyd, C., & Miller, P. C.(1997)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style to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dulthood.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11), 655-663.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1978). *Psychosomatic families : 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ontemayor, R.(1983). Parents and adolescents in conflict :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and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temayor, R., & Hanson, E.(1985). A naturalistic view of conflict between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5, 23-30.
- Paikoff, R. L., & Brooks-Gunn, J.(1991). Do parent-child relationships change during puberty? *Psychological Bulletin*, 110, 47-66.
- Prin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Quintana, S. M., & Lapsley, D. K.(1990). Rapprochement in late separation-individuation :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13, 371-385.
- Quintana, S. M., & Kerr, J.(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49-354.
- Robin, A. L.(1975). *Communication Training :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Parent-Adolescent Confli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Robin, A. L., & Foster S. L.(1989). Negotiation parent-adolescent conflict : A behavioral-family system approach. New York, NY : Guilford Press.
- Robin, A. L., Kent, R., O'leary, K. D., Foster, S., & Prinz, R.(1977). An approach to teaching parents and adolescents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 skills. *Behavior Therapy*, 8, 639-643.
- Rohner, R. P., & Pettengr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 Rohner, E. C.(1978). Unpublished research data.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Ruter, M. A., & Conger, R. D.(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35-448.
- Shulkin, A. T.(1990). Separation-individuation and identity status among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metena, J. G.(1988a). Concepts of self and social convention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family conflicts. In M. R. Gunnar & W. A. Collins(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1, pp. 79-122).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etena, J. G.(1988b).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321-335.
- Smetena, J. G.(1989). Adolescent'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33-840.
- Steinberg, L.(1987). The impact of puberty on family relations : Effects of pubertal status and pubertal timing. *Development Psychology*, 23, 451-460.
- Steinberg, L., & Darling, N.(1994). The broader context of social influence in adolescence. In R. K. Silbereisen and E. Todt(Eds.), *Adolescence in context*(pp. 25-45). New York : Springer-Verlag.
- Steinberg, L., Dornbusch, S., & Brown, B.(1992). Ethnic differences in adolescent achievement i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7, 723-729.
- Steinberg, L. D., & Hill, J. P.(1978).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s a function of age, the onset of puberty, and formal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4(6), 683-684.
- Steinberg, L., & S. Silverberg.(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년 2월 29일 토고 : 2004년 3월 7일 채택